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인물인터뷰 임성택 목사

기획특집

디즈니

기획연재

라이스니히 시의 공동금고

(Die Leisniger Kastenordnung)

무스 선교사 부인의 춘천 여성선교

성시화의 현장 영역별 리더

문화에 빠지다

맛기행 예수의 미소

영화이야기 기독교 영화의 선별과 구별

영화감상 김복동

책속의 책 거룩한 순종

네 가지 사랑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건강 건강 대추

250

Summer 2023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청춘스쿨

- 기 간 : 9월 11일~10월 30일.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 장 소 : 광장감리교회
- 등록비 : 3만원(수료 후 등록금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 수료 혜택 및 조건 : 다음 아카데미에 스태프로 섬길 수 있습니다. 결석 1회까지 인정
- 문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010-9698-2993)

회복의 시간



1
주
9월
11일
(월)

캠핑처럼 예배하라

- 강사 | 강 산 목사
(포항제일교회 청년담당)



2
주
9월
18일
(월)

MCU세계관-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 강사 | 박도준 목사
(하늘뜻이룸교회)



3
주
9월
25일
(월)

말씀에는 힘이있다

- 강사 | 엄기홍 목사
(그말씀양문교회)



4
주
10월
9일
(월)

주님과 함께 걸으라

- 강사 | 최상도 목사
(사암교회)



5
주
10월
16일
(월)

관계적 '결핍'을 넘어 '결혼'하라!

- 강사 | 김영한 목사
(Next 세대 Ministry 대표)



6
주
10월
23일
(월)

은혜의 용광로

- 강사 | 이병철 목사
(주향교회)

7주 10월 30일(월) • 비전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05 인물인터뷰 | 임성택 목사 | 최상도 목사

기획특집

09 디즈니! 아이들의 천국 NO! 동성애의 천국 YES! | 이관형 권사

기획연재

10 라이스니히 시의 공동금고(Die Leisniger Kastenordnung) | 최준혁 목사

13 무스 선교사 부인의 춘천 여성선교와 교육사업 | 김동정 장로

16 성시화의 현장 영역별 리더 | 조용호 박사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17 맛 기행 예수의 미소 | 이관형 권사

20 영화이야기 기독교 영화의 선별과 구별 | 김춘배 화백

22 명화감상 | 김복동

23 건강 건강 대추 | 이시형 원장

24 책 소개 책속의 책 | 정숙현 전도사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신협 131-005-937566(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성시화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허들링(huddling)으로 소통하는 사람

취재 **최상도** 목사
(사암공동체교회)

2022년은 춘천 성시화운동이 일어난 지 50년, 곧 희년이 되는 해였다. 올해는 두 번째 희년을 향하여 달려 나가는 새로운 50년의 첫 해이다. 이런 의미 있는 출발점에서 「세대를 뛰어 넘는 새 플랫폼(이하 세뛰새)」이 춘천의 석사교회에서 열렸다. 세뛰새 전체를 총지휘한 임성택 사무총장은 춘천 출신이다. 게다가 임성택 사무총장은 1996년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출범할 때 초대 간사를 지냈던 이력이 있다. 최근 춘천에서 세뛰새 사역을 진행한 임성택 목사를 만나 그 소감을 들어 본다.



▲ **임성택** 목사
(세뛰새KOREA 사무총장)

1. 안녕하세요. 의미 있는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6년,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출범할 때 초대 간사를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소회와 다시 춘천에서 사역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996년,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설립되고 춘천 성시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부족하지만 춘천 성시화운동본부의 초대 간사로 사역했습니다. 당시 저는 춘천시장, 법원장, 검사장 등의 기관장 기도모임의 뜨거운 기도에 감동되어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춘천 성시화운동 권역별 회의에 참석하여 저희 세뛰새 사역을 소개할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이 상명하복의 획일적인 사역 방식이 아니라, 각 단체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 단체가 서로의 사역 특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며, 조정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사역하고 있는데, 춘천 성시화운동이 선진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진보한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 이번에 석사교회에서 열린 세뛰새코리아 세미나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 의미까지 말씀해주시지요.

그동안 세뛰새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의 다양한 목회의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세미나의 강사로 나서는 분들이 저마다의 사역의 전문가들이셨으며, 성품도 훌륭한 분들이셨고, 일반 목회자들

과는 무언가 다른 면모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전받은 저는 지금껏 드러나지 못했던 역량 있는 분들을 발견하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역의 방법들을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동등한 인격으로 자신들의 사역과 목회에 대하여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저는 ‘허들링(huddling)’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허들링’은 남극의 황제펭귄이 남극의 극점으로 가서 번식할 때, 추위를 이겨내며 이동하여 번식하는 방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황제펭귄들이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목적지인 남극의 극점은 극한 추위로 천적들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만, 가장 큰 천적인 극한 추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펭귄들은 무리를 지어 서로의 체온을 통해 추위를 이겨냅니다. 매서운 남극의 눈보라가 몰아칠 때 무리의 맨 바깥 부분에 있는 펭귄들은 그 추위에 더 강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바깥 부분에 있는 펭귄들은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따뜻한 안쪽의 펭귄들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자신들이 바깥으로 나가며 임무 교대를 합니다. 이렇게 펭귄들은 겨울 동안 추위를 이겨내고, 번식하여 세대를 이어갑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매서운 남극의 바람과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실체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이겨낼 능력도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세뤼새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최전선에서 추위를 맞대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들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여 소통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세뤼새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참여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부르심과 사역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한 내용을 글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떠한 권위자의 코칭 보다도 더 강력한 자기진단과 셀프 코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제문을 쓰면서 자량과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과 그것을 딛고 극복했던 과정을 솔직하게 작성하고 나누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저희는 PPT나 영상 자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고 순수한 발제문을 기반으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굳이 누구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로 의미가 컸을 뿐 아니라, 글쓴이(발제자)와 듣는 이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의 발제와 나눔을 총 여덟 개의 세션으로 2023년 6월 19~20일 이틀 동안 춘천 석사교회(손학균 목사 담임)에서 “세뤼새 플랫폼데이 강원”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성과 사역’의 큰 틀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영성의 주제는 한국교회 영성목회의 권위자이신 서정오 목사님께서 춘천 출신으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어 수평적인 틀로서 구체적인

사역의 분야는 ‘마을 만들기 사역’의 권위자이신 한국일 교수(장신대 은퇴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수고로 춘천의 지역교회들이 춘천 성시화운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분들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사실 이분들이 다른 세미나에 가시면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강의만 하면 되는데 저희 “세뫼새 플랫폼 데이”에 오셔서 현장 목회자들의 발제를 이틀 동안 다 들어주시고, 일일이 코멘트 하는 작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섯 개의 ‘관심 분야별’, ‘친밀감 위주의 모임별’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캠퍼스 사역자 포럼”의 경우에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사역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풍성하고도 구체적인 나눔이 있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계획이나 기도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분들은 8, 90년대 캠퍼스와 교회 청년 대학부에서 은혜를 받고, 소명의식으로 목회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물론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회현장의 상황은 이분들의 사역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사역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한국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한 명의 사역자가 세워짐에 있어 교회나 가정, 목회자 자신이 투자한 물질적, 영적인 자산은 이루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역의 자리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방법을 찾으며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살인적인 임대료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와 다른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교회는 그저 이분들을 경쟁 구도에서 도태된 무리로 보는 관점을 갖는 듯합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시화운동이 춘천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처럼, 이러한 일이 춘천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뫼새 기간인 6월 19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참여자 모두가 함께 드렸던 찬양을 불러 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이다!’



디즈니! 아이들의 천국 NO! 동성애의 천국 YES!

이관형 원장
(춘천 자연유치원)

지난달에 개봉한 국내영화 ‘범죄도시3’로 대박 행진을 하고 있는 배우 마동석의 할리우드 데뷔작인 영화 이터널스(2021)에서는 마블 스튜디오 최초의 게이 흑인 슈퍼히어로가 백인남성과 가정을 이루며 자식을 둔 부부로 등장, 서로 딥키스하는 장면이 버젓이 연출되어 놀랐다.

오래전 펄프픽션(1994년 작/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이란 헐리웃 영화는 배우 존 트라볼타가 우마 서머랑 같이 맨발로 트위스트 댄스에 맞춰 일명 가위춤을 추는 장면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코미디나 로맨스가 아닌 어마어마한 흑인 갱단 보스가 어쩌다 우연히 게이인 경찰에게 붙잡혀 강간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등 한마디로 괴랄스런 B급 영화다.

위에 언급한 영화 ‘이터널스’와 ‘펄프픽션’의 공통점은 제작 후원이 디즈니이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미키 마우스에게 앵벌이 시켜서 번 돈으로 이 같은 추잡한 영화를 제작하고 후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디즈니에서 실사로 제작한 ‘인어공주’는 원작과는 달리 주인공인 인어공주가 백인이 아닌 흑인이 캐스팅되어 논란을 빚은 가운데 흥행에 실패하고 비난받는 영화가 되었다. 필자는 다양한 인종들이 주인공인 경우는 괜찮아 미스 캐스팅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성별과 장애가 어떻든 상관없다. 하지만 영화의 본질을 봐야 한다. 디즈니 측에선 일명 PC(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형태에 대해 저항하며 바로 잡으려는 운동이나 철학) 프레임으로 본인들의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편협한 사람들로 치부하며 인종차별로 몰아간다. 한마디로 그 속내는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마치 바닷물에도 민물고기가 꼭 있어야 한다는 잔인한 생각이다.

디즈니는 문화적 선도라는 미명아래 영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속속 속출하며 급기야 토르의 동생 로키의 성별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젠더플루이드(Cienderfluid)로 소개된다. 이처럼 성별 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은 마블 작품 속에 동성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동성애가 작품 주제의 핵심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소식에 의하면 앞으로 1대 마블 히어로들이 물러나고 2대 마블 히어로들을 통해 PC를 뚜렷이 보여준다고 한다. 이는 비단 마블뿐만 아니라 DC에서도 슈퍼맨과 울버린, 헤라클레스 등의 영웅들이 전부 게이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어느 유명 대학 젊은 교수가 TV 방송에 출연, 자기 딸이 결혼 상대자로 여자를 데리고 와도 인정해 준다고 실실 웃으며 떠들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찬 노릇이다. 어디 이뿐인가? TV조선에는 새로운 토, 일 드라마 ‘아씨 두리안’에서 며느리-시어머니의 고부간 동성애부터 조선시대 두 남성의 동성애를 예고, 막장의 기운을 풍겨서 지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동성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거기에 성적 취향과 더불어 행위로 옮겨지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병적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아니라고 주장하면 모든 사랑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과 나눈 수간 사랑 이야기, 마네킹과 혹은 핸드폰과 결혼한 사랑 이야기, 근친상간의 사랑 이야기도 모두 존중받아야 하며, 영화나 안방 TV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다는 말인가?

현재 충남을 비롯한 몇몇 교육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가정파괴, 교권붕괴, 반성정적인 차별금지 조항으로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교회를 중심으로 학·인·연(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과 자·수·연(자유와 생명수호 교사연합)과 같은 많은 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와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와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학력 저하를 조장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유, 초등생에게 포르노 같은 나다움 어린이책을 추천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특히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이 아닌 동성애와 성전환을 허용하는 성평등 교육을 준비,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성혁명 보전 교과서를 제작 중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세력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언론과 방송, 건축,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장악하며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와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영적군사로 당당하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라이스니히 시의 공동금고(Die Leisniger Kastenordnung)

최준혁 목사(가까운 루터교회)

오늘날 복지국가의 초석이 된 “라이스니히 시 공동금고 규정”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지원으로 만들어지다.

사랑의 실천이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까요? 특히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 질문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새롭게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개신교 최초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금고”의 시간적, 역사적 배경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16세기 라이스니히 시민들이 마르틴 루터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라이프찌히에서 멀지 않은 물데 강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종교개혁의 영향력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도시였습니다. 1519년 루터가 교황의 부름을 받아 그의 95개 논제를 설명하기 전에 이미 라이스니히 시에서는 종교개혁적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제 제국의 공의회는 종교개혁의 종교,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열매들을 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과 신학적 고민들은 당시 중세시대의 실제적인 사회문제들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회적인 책임

새로운 사회적 책임인 ‘라이스니히 공동금고의 규정’은 종교개혁 당시의 도시와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걸인들의 구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중세시대 가난한 자는 단지 성경이 언급하는 고아와 과부와 여행객만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때문에 가난과 구걸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구걸의 행위는 청빈으로 간주되었고 자발적 가난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행위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13세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탁발수도원들 즉 ‘걸식수도원’들은 이러한 중세의 ‘자발적 가난’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루터가 가입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도 청빈과 형제애를 기독교의 모범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국 가난한 이들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해서 사후 연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즉 구원의 동기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선행과 면죄부 구입으로 살 수 없다는 새로운 신학적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학적 업적과 노력은 걸인들의 생계를 빼앗았고 걸인들은 도시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일부 도시에서는 일종의 사회 보험 기금인 ‘공동금고(Gemeinen Kasten)’를 설립하여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부양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는 빈곤층과 구걸하는 사람들의 증가는 사회에서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책도 등장했습니다. 수도원의 해체, 교회 재산의 매각, 토지 및 자산의 수입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금고 (Gemeinen Kasten) 아이디어는 지속 가능한 지지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이프니히 시의회 의원들은 루터를 여러 차례 초청해 부의 재분배와 걸인들의 곤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기로 논의 했습니다. 단순히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규제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사회 질서로 움직이게 만드는 윤리 규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라이스니히 교회공동체는 예배 때 드리는 헌금 이외에 ‘공동금고’를 만듭니다. 이 공동금고 함에서 나온 돈은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목회자, 교회 직원 및 학교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돌봄, 노인들, 병든 사람들, 고아들, 수감되어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한 대부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비용으로 학비가 폐지되어 교육이 더 이상 부유층만의 특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학교에 가게 되었고, ‘나이 든 여성’을 고용해 그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교육과 사회사업을 통

해 걸인을 도시의 경제생활에 통합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일할 수 없는 사람들만 공동금고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스니히 공동금고 규정은 교구 내에서 구걸을 금지했습니다.

이 금고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교회 내부에 있었고 금고는 한 개의 열쇠만으로 열리지 않고, 네 개를 동시에 넣어 돌려야만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부 기록은 투명하게 기록되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열쇠 관리는 선출된 대리인이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두 명의 귀족, 두 명의 시의원, 세 명의 시민, 세 명의 농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출을 위하여 일 년에 세 번 모이며, 교회와 시는 지출을 위한 공동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라이스니히 공동금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는 라이스니히 공동금고 규정에 대한 4페이지 분량의 서문을 작성하고 비텐베르크에서 인쇄를 의뢰합니다. 근대적 사회복지를 위해 제정된 이 원칙은 다른 많은 도시에서 해당 규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라이스니히 공동금고 규정”은 세계 최초의 개신교 교회 사회복지 규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5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스 선교사 부인의 춘천 여성선교와 교육사업

김동정 장로(춘천신성감리교회,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무스 선교사(제이콥 로버트 무스, Jacob Robert Moose, 한국명 무야곱, 1864~1928)의 부인 메리 매그놀리아 더함 무스(Mary Magnolia Durham Moose, 1867~1952)는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25년(1899~1924) 동안 봉직했던 인물이다.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주(State of North Carolina)에서 출생하고 1891년 그린스보로(Greensboro)여자대학 졸업하였으며, 1893년 무스와 결혼, 1899년 7월 남감리회 선교사로 남편과 함께 내한, 1908년 9월 30일에 춘천으로 이사하였다.

무스 부부는 춘천에 들어와서 살게 된 최초 ‘서양인’ 가족이 되었다. 춘천 사람들은 전에도 춘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본 적은 있으나 이처럼 살려고 들어오는 서양 사람은 처음 보았다. 처음으로 춘천에 들어온 무스 부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비로웠다.

무스 부인이 춘천에 처음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 비가 그친 후 구름 사이로 본 쌍무지개를 춘천 선교의 ‘전조’로 읽었다. 별거숭이의 봉의산과 거리의 담배 문 사내들, 가마꾼 따라다니는 더러운 아이들 등의 ‘역겨운’ 광경을 무지개의 ‘아름다운’ 광경으로 바꾸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무스 부인의 여성선교

무스 부인의 춘천 정착은 춘천지방의 여성선교의 출발을 의미하였다. 1908년 9월 30일, 봉의산 기슭 비구름 속에서 ‘쌍무지개’를 보면서 춘천에 들어온 무스 부인은 춘천 선교부 안 시약소 건물에 짐을 풀자마자 몰려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 무스 부인은 춘천 도착 후 1년을 집에서 찾아오는 구경꾼들을 맞는 것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무스 부인은 살림집을 구경꾼들에게 개방하였다. 소문을 듣고 백 리 길을 걸어온 시골 여인들에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스 부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처럼 선교 초기 선교부 ‘양관’을 구경하러 온 토착민들에게 집을 공개하였다. 선교사들은 이를 선교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토착민들은 선교사 집을 통해 서구 문명과 기독교인의 생활을 접했다.

집안을 자세히 보여 주는 것으로 기독교를 알게 하고 복음을 접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선교사들은 지방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 앉아서 많은 토착민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선교사 집을 구경하러 왔다가 믿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이를 ‘구경 선교’(Gukyung Mission)

라 하였다. 무스 부인도 그런 식으로 ‘구경 선교’를 하였다.

무스 가족이 아동리 새집으로 옮겨간 1909년 1월부터 무스 선교사 사택에서 매주 2회 집회를 시작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석하는 대판리 예배당의 주일 예배 외에 매주 두 번씩 여성들만 모여서 집회를 하였는데, 한 번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기도회로 모였고, 한 번은 한글 공부반으로 모였다. 그 외에 교리 공부반도 하나 조직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장차 교회 사역자(전도부인과 속장 등)로 활약할 수 있는 예비 지도자들을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모임이었다. 토착 여성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무스 부인은 이미 토착 ‘전도부인’들의 활약을 목격하였고,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무스 부인은 춘천에 내려오자마자 나마리아(羅瑪利亞)를 비롯한 4명의 전도부인들의 지원을 받으며 춘천 시내와 인근 지방 선교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었다. 무스 부인은 초기 춘천 지방 여성선교 확장은 전적으로 전도부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들은 춘천의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무스 부인이 미처 가지 못하는 시골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무스 부인은 춘천에 도착한 직후부터 ‘떠밀리듯’ 여성 선교에 착수하여 불과 1년 만에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집에 앉아서 매일 수십 명에서 백여 명에 이르는 ‘구경꾼’들을 맞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접하고 믿기 시작한 여인들도 여성 집회와 여성 신학교육을 시작하였다.

무스 부인의 교육사업

무스 부인은 1909년 1월 춘천 선교부 아동리 사택에 입주하자마자 교육사업도 곧바로 시작하였다. 춘천에 외국인 교육 시설이 있을 리 만무했던 시절이었기에 무스 부인은 자녀 교육을 직접 담당하였다. 그래서 오전에는 자녀들에게 학과 공부를 시키고 오후에 선교 사업을 하였는데, 처음엔 선교사 자녀 세 명만으로 ‘외국인 학교’처럼 시작하였으나 교인 자녀 서너 명이 합류함으로 ‘국제 학교’처럼 되었다. 오후에는 ‘구경 선교’와 ‘여성 집회’를 비롯한 선교 사역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였고, 수업은 오전에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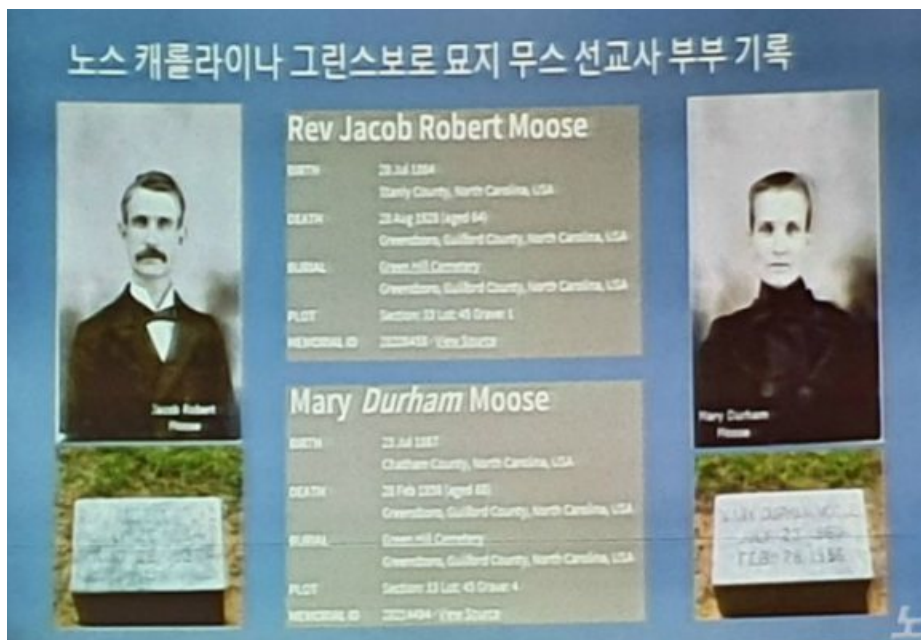
1909년 9월 연회에서 무스 선교사는 춘천에 정식으로 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교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춘천 시내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무스 부부의 호소는 곧바로 응답되어 1909년 9월 6일 연회 석상에서 선교사들의 즉석 헌금(1백 달러)으로 건축비가 마련되어 우선 아동리 언덕에 남학교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회에서 돌아온 직후 무스는 한옥 예배당에서 ‘기독교 학교’(基督學校)란 명칭으로 남학교를 시작하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교사를 마련하고 그곳으로 옮겨갔으나 38명으로 늘어난 학생으로 공간이 좁아 다시 예배당으로 옮겨야 할 실정이었다. 이것이 후에 한영지서원(韓英支書院)으로 발전하는 춘천의 최초 사립 남학

교의 출발이었다.

여학교도 같은 아동리에 한옥 교사를 마련하였다. 여학교는 서울에서 배화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남감리회의 한국 여성선교 개척자 캠벨(J. Campbell) 부인이 건축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캠벨 부인의 지원으로 초가 9칸 건물에서 ‘기독여학교’(基督女學校)란 명칭으로 시작한 여학교도 성공적이었다. 춘천에서는 처음 설립된 ‘여학교’였음에도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처음엔 ‘매일학교’로 시작하였으나 멀리 지방에서 자녀를 데리고 온 교인이 있어 ‘기숙학교’ 형태도 취했다. 그리고 교인 자녀뿐 아니라 불신 가정에서도 많은 학생이 왔으니, 강원도 도지사의 딸도 거기 포함될 정도였다. 교장은 무스 부인이었고 개성에서 교사를 데려와 교육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여학교도 학생이 늘어남으로 교사가 좁게 되었으나 191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의 웨스트마켓스트리트(West Market Street)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내 준 선교비 2백 달러로 건물을 증축하여 남학교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렇듯, 무스 부부 특히 무스 부인의 헌신적인 여성선교와 교육사업은 춘천지역 복음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여 오늘날 ‘무지개의 춘천성시화’의 기초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스 부인(우측) 모습

성시화의 현장, 영역별 전문 리더(Domain leader)/①개관

조용호 박사(춘천성시화연구소장)

성시화의 여정

성시화의 여정은 길고 험하여 살아생전 결실을 보는 일도 있으나 상당수 일은 본인은 그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언더우드와 기도나 닥터 홀 가문의 조선회상, 민족복음화의 꿈이 그렇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성당 문 앞에 면제부에 대한 반박문을 내걸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대화하였겠는가. 루터는 그 일로 교회가 지금과 같이 부흥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을까? 세대를 넘어 성시화의 꿈이 이어지는 것은 지금도 누군가 그 꿈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현장에서 해보는 성시화 질문

2019년 봄, “결격사유”라는 이름으로 각종 시험과 자격에서, 공직 등 직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476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법령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낭비벽이 있는 안경사 가족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면 그 안경사는 아무리 뛰어나도 바로 자격을 상실한다. 이것이 불과 얼마 전 우리나라 법제도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었다. 단계마다 찬반을 설득하며 ‘입법예고 “하던 날, 자폐증 자녀를 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암기력과 분별력이 뛰어난 아들이 사회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 감사하다. 사람을 불합리한 편견으로 분류하고 낙인찍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성시화는 그들에 빛을 비추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지금은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섭렵하며 두루 업적을 남기는 시대가 아니다. 최근 연구원 채용분야를 보니 응용미시경제, 미래산업정책이라 적혀 있다. 미시경제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산업을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론과 함께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보니 대학의 과 명칭도 바뀌고 있다. 간단한 커피 한잔을 생각해 본다. 커피유통회사, 커피로스팅과 커피전문점을 거치며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며 전문인이 참여하는가. 이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커피 열매를 올려놓고 묻지 않았는가.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가공하여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IT 전문가라면 Big data로 주님의 창조세계를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까? 라고 물을 것 같다.

춘천 성시화의 영역(Domain)

성시화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춘천의 이야기를 찾는 사역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성시화는 한 사람의 지도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 그 출발점은 지난 글에서 보듯 연구자(Reacher)이다. 이제 연구자와 각 전문분야별로 성시화의 꿈을 질문하는 리더(Domain reader)가 연결되어야 한다. 춘천을 이루는 전문영역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연구자와 전문분야를 서로 연결하고 변혁의 다리가 되는 법제·기획, 춘천의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도시개발·계획, 관광과 바이오 데이터 등 춘천전략산업, 물과 산이 아름다운 환경, 인재를 키우는 교육, 매스미디어 등 주민소통 등이 있겠다. 전문영역별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혜를 찾는 일이 시작되길 기도한다(calmho@gmail.com).

내 몸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관형 원장(춘천 자연유치원)

세상일이 분주해도 사람은 허기를 메꾸기 위해 밥은 매일 꼭 먹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 밥의 양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한다. 그밖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다음에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돼지고기, 라면, 소주라고 하는데 특히 소주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시는 양이 개인 욕조 하나쯤은 거뜰히 채운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린다.

필자의 청년 시절 갑을관계의 저녁 식사 모임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밥 먹는 자리인지, 아니면 술을 먹기 위한 자리인지 크리스천으로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 젊은 혈기와 믿음이 부족한 탓에 크리스천의 정체와 신분을 잘 드러내지 않고, 다니엘처럼 동화하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너무 동화되어 흔들리는 식사 자리에서 자존감 없이 자존심만 썩 사람들의 욕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관해 앎 없이 연실 내뱉는 말들로 내 몸을 세상 쓰레기통으로 만든 적이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한다. (바른 인성은 밥상머리에서 나온다고 했던 아버지 세대의 교육이 생각난다. 어느 장소이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인격이자 인성이라 가정교육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기준이자 양식이다.) 하지만 내 나이 50이 넘으니, 세상적인 갑을관계로 만남이 잦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내가 을이 아닌 갑이라(아니면 슈퍼 을이라) 내 영육 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인품과 인성, 지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좋은 말과 기분을 공유하며 잘 지내고 있다.

필자는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 고질병인 척추관협착증이 재발하여 약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직장에 수북이 쌓인 업무를 두고 입원해서 그런지 속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그러나 그동안 고된 업무로 숨 쉴 틈도 없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 잠시 쉬을 곳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들였고, 병원을 치료 차 들린 기도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오지랖이 넓은 탓에 입원 기간 동안 코로나 시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은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콜라 등의 탄산음료와 빵, 피자, 치킨, 떡볶이, 부침개, 순대, 떡 등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할 정도로 많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정도였다. 그리고 하루 세끼 식사 후 약을 먹지 않고 선물 받은 음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그러다 보니 무려 12kg 넘게 내 몸 구석구석에 마블링이 꽉 차게 들어차 금복주 소주 모델 혹은 미쉐린 타이어 회사의 캐릭터로 변했다.

하지만 다행히 퇴원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급적 밀가루 음식, 특히 짜장, 짬뽕 등의 청나라 음식과 햄버거, 치킨 등의 정크푸드는 거의 먹지 않으며, 심지어 주일 교회의 점심 메뉴로 국수가 등장하면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먹질 않았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 다행스럽게 입원 전의 몸무게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어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다.

과욕을 삼가듯 과식도 삼가야 한다. 복음 찬송 중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육신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한다(행복의 가장 커다란 적은 ‘비교’다).

둘째, 건강해야 한다(그래야 항상 주안에서 기쁘게 웃을 수 있고 몸 안의 불필요한 독소들도 빠져나간다).

우리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은혜로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성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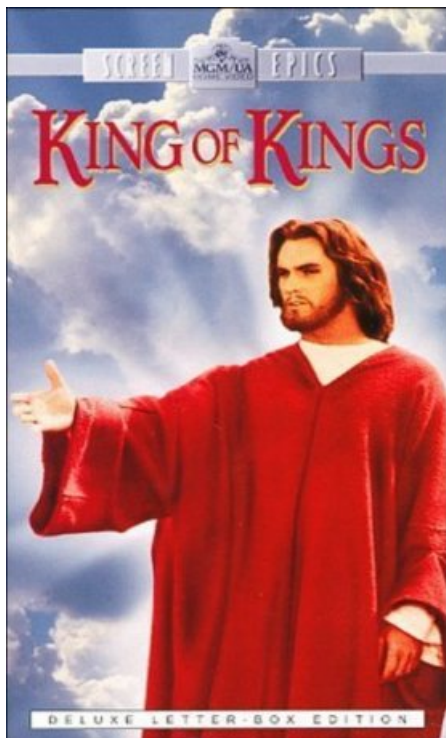




문화산책

기독교 영화의 선별과 구별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성시신문이 이제 250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8년 시작으로 25년, 곧 4반세기 역사를 갖게 된 셈이다. 필자는 창간 무렵부터 만평으로 섬겼는데, 2007년부터 이관형 권사의 자원으로 양도하고, 편집진들이 영화소개를 권유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첫 작품 <왕중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년여간 150여 편이 넘는 영화들을 소개해 왔다. (여기서 ‘소개’라는 말에 방점을 둔다, 왜냐하면 영화에 관한 기사는 평이 다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전문적인 영화비평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공유하는 영화를 선별하여 보고 소개하는 일은 그림 다음으로 영화나 드라마 시청에 심취하는 필자로서는 매우 즐겁고 의욕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실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영화 중에서 영적 감동을 온전히 드러내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작품을 고르기란 여간 신중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달이 새로운 작품을 검색하고 찾는 중에 기다

렸단 듯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영화가 어렵지 않게 발견 및 포착(?)되던 경우가 많은 것은 필자에게는 ‘도우심’의 체험으로 느껴지기까지 하였다. 해외영화 위주라 필요한 번역자막도 놀라운 은혜의 연속으로 제때 구할 수 있어 내용파악이 수월하기도 하였다. 한국영화의 경우 청각장애인 필자로서는 배리어프리로 한글 자막으로 감상하고 나서야 소개할 수밖에 없지만 많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대로 보도할 수 있었다.

우선은 단순한 복음전파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대체로 작품성에 있어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로서 미학적 가치가 출중하고 그 감동과 여운이 깊고 길고 은혜로운 작품은 만나기 힘들다. 이 모든 조건을 제대로 만족시키는 영화는 모두가 잘 기억하는 존 휴스턴의 <천지창조>, 세실 B 드밀의 <십계>, 윌리엄 와일러의 <벤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벤허>는 지금까지 영화사상 가장 놀라운 작품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뺀 전 부문 수상이라는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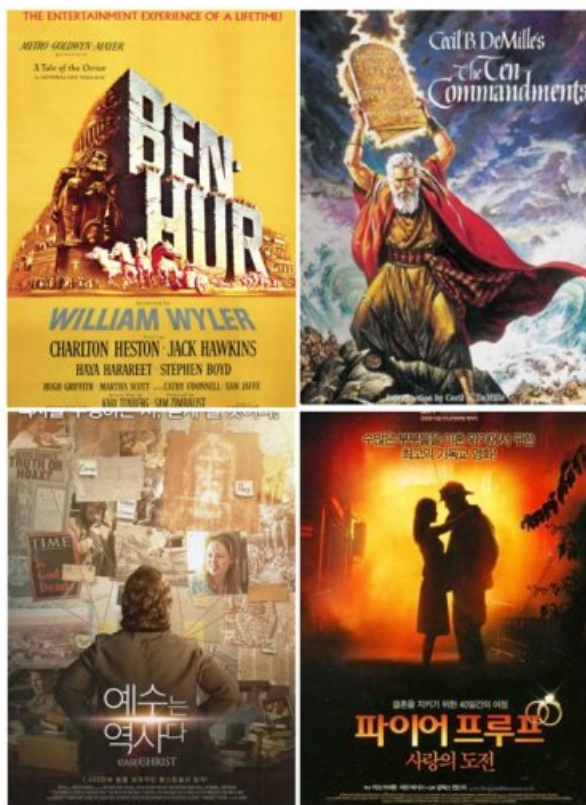
레없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십여 년 전 언론이 예상했던 기독교 영화의 풍성함은 사실상 우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쳐 안타까웠다. 오래전보다 기술과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현대라지만 오히려 영적 감동과 은혜로움이 더 빈곤한 것이다. <십계>를 리메이크한 감독이 특수촬영을 대대적으로 활용했던 거장이라 기대가 잔뜩 컸는데 제목도 아연실색하게도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니! 아이맥스 3D로 생애 최고 비싼 관람료를 내고 봤는데 영적 감동이 한참이나 떨어져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었다! <벤허>의 리메이크작도 생소한 감독의 작품으로 모건 프리먼 같은 유명 배우가 출연했는데도 기술적으로도 원작보다 빈약한 느낌을 줄 뿐이었다. 자본과 기술의 발전만큼 드러나는 영적 위기의 시대 때문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다행히도 미국에 기독교 영화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셔우드 픽처스(Sherwood Pictures) 같은 제작사가 있어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온전한 은혜로 작품성 좋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위안이 될 수 있겠다. <믿음의 승부>(Facing the

Giants, 2006), <사랑의 도전>(Fireproof, 2008), <용기와 구원>(Courageous, 2011) 등이 그것이다. 할리우드의 자본과 기술이 아니라도 참된 영성으로 만든 영화가 비신자들에게도 강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진위를 떠나 진리를 제대로 체험하고 살아나가는 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비유(parable)라는 창조적인 장치를 통한 감동과 깨달음의 공유를 통해 가능할 때가 많다. 영화도 그중의 한 방법일진대 깊은 영적 지혜와 온전한 영성의 깊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실력과 기술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진리와 감동을 나누고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보편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대로 구별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김복동

Salvation 2015-13

344×161.9cm

oil on canvas & wood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 복음9:9)



대추의 효능

이시형 원장(이시형 한의원)

어릴 적 매년 추석 무렵, 앞마당 대추나무에 탕탕하니 주렁주렁 열린 대추를 추석 제사상에 올렸던 기억이 난다. 대추는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라 자손 번창을 의미한다. 제사상에선 조율시이(棗栗柿梨)라 하여 대추, 밤, 감, 배 등의 순으로 첫 번째 자리에 놓인다. 결혼식에서 폐백을 할 때 시부모가 신부의 치마폭에 밤과 더불어 대추를 던져주는 것도 자손 번창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음력 8월에 따서 별에 바짝 말린 대추는 한방에서는 대조(大棗)라고 하여 여러 가지 약들의 작용을 순하게 조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한약 처방에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사용되고 있다.

말린 대추는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달고 독이 없어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어도 좋는데 특히 위장을 보해 주고, 위의 기운을 편하게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므로 몸이 차고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은 장복해도 좋고 숙면을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

동의보감에서는 “오장을 보한다고 하며 달여서 물을 마시면 좋다. 비위를 보하여 편안하게 하는데 달여서 먹는다. 또는 삶아서 살만 발라 알약을 만들어 비위를 고르게 하는데 쓰면 더 좋다.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여 위장을 든든하게 하는데 늘 먹어야 좋다.”라고 한다.

생대추는 맛은 달고 매운 맛이다.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 오르고 설사하니 찌서 먹으면 살찌게 하고 기운을 돕는다.

대추나무잎은 가루를 내어 먹으면 사람이 여위게 되며 즙을 내어 땀띠에 문지르면 좋다고 한다.

요즘 세대는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동성애도 늘어난다고 한다.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안 낳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몇십 년 뒤에는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니 요즘은 포대기 속에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천연기념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주님은 한 가정을 이뤄 자손을 번창하라고 하신다. 다가오는 가을, 대추처럼 한 나무에서 주렁주렁 많은 자손을 낳고 번창하고 은혜의 열매도 많이 열려 주님께 다가가는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책속의 책

정숙현 전도사(안디옥교회)

거룩한 순종 / 토머스 켈리 지음 / 김태곤 번역 / 생명의말씀사

좀 과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미 이렇게 살다 간 이의 깊은 통찰을 배움으로, 주님을 절반 정도 따르는 데서 나머지 절반마저 따르는 삶, 기꺼이 주님을 따르며, 신실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복종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픈 이들에게 추천한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며, 그분의 짐이 우리의 짐이며, 또한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다.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비워지며,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심으로 거룩한 순종이 시작된다.(이 귀한 책이 절판이라지만 중고서점을 뒤지는 수고가 아깝지 않기에....)



네 가지 사랑 / C.S.루이스 지음 / 이종태 번역 / 홍성사

각각의 특성적 사랑이 어떻게,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완성되는가의 사랑 만발한 정원 같다. 사람이 에로스(남녀 간의 사랑)로 세상에 태어나서, 스토르게(부모의 자녀 사랑)의 젖을 먹으며 자라고, 필리아(우정)로 강건해져서, 아가페(신의 사랑)로... 지상의 사랑을 도약하여 신의 사랑의 성품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사랑 아닌 것과 사랑인 것을 구분하게 하며 사랑을 가르친다. 자연적인 사랑을 통해 사랑의 절정인 신의 사랑을 만나게 한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 우종영 지음 / 한성수 엮음 / 메이븐

2019년부터 춘천시에 진행하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 선정된 책.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나무 의사로 30년간 아픈 나무들과 함께한 저자가 숲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인생을 이야기한다.

어떤 이가 이 책을 읽고 남긴 글이 인상적이었다. “한 번 읽으면 나무를 사랑하게 되고 두 번 읽으면 내 삶을 사랑하게 된다.” 가독성이 뛰어난 책이니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읽다 보면 자꾸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보게 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박복연 박해옥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윤인 권혁자 권현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소옥 김순월 김순희 김양수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에 김정의 김정희 김중복 김중숙 김중욱 김중익 김중찬 김중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항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명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난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소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관 박정원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춘하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수 손학균 손갑수 손근영 손미화 손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신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송홍 연정화 염은희 염정원 오성남 오성예 오소연 오재영
 오홍금 오홍수 오애중 오영옥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근 유재란 유점진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유금숙 윤기춘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홍록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림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선임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수자 이승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근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란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는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해란 이해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웅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성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윤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욱 차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애섭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하은희 한영수 한성우 한순덕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용 황변구

후원교회

감 리 성 결 교회 강 변 제 일 교회 강 원 침례교회 거 성 침례교회 그 말 씀 양 문 교회 금 산 교 회
 나 수 성 결 교회 동 신 장 로 교회 밝 은 빛 장 로 교회 사 랑 의 교 회 사 암 성 결 교회 새 춘 천 교 회
 석 사 감 리 교회 소 양 성 결 교회 소 양 성 결 교회 순 복 음 제 일 교회 순 복 음 제 일 교회
 순 복 음 조 은 교회 순 복 음 춘 천 교회 신 북 교 회 신 성 감 리 교회 아 미 교 회 임 마 누 엘 교 회
 엠 마 오 교회 여 의 도 순 복 음 춘 천 교회 예 사 랑 교 회 예 수 춘 교 회 옥 산 포 침 례 교회 온 누 리 교 회
 우 두 감 리 교회 주 의 숲 교 회 주 찬 양 교 회 주 향 장 로 교회 주 향 장 로 교회 춘 천 광 명 교 회
 춘 천 광 명 교회 춘 천 그리스도 교회 춘 천 명 성 교회 춘 천 동 부 교회 춘 천 예 담 교회 춘 천 우 리 교 회
 춘 천 은 평 교회 춘 천 은 혜 교회 춘 천 일 신 교회 춘 천 중 앙 성 결 교회 춘 천 제 일 교회 춘 천 예 일 장 로 교회
 춘 천 침 례 교회 춘 천 평 화 교회 하 늘 평 안 교회 한 빛 교 회 한 울 섬 김 교회 혈 동 교 회
 화 목 교 회 후 평 제 일 교회 춘 천 광 장 교회 산 슬 교 회 산 천 무 지 개 교회 제 자 감 리 교회
 하 늘 기쁨 교회 성 광 교 회 섬 이 있 는 교 회 암 스트 롱 병 원 교회 춘 천 효 자 감 리 교회 효 신 교 회
 초 대 교 회 평 성 성 결 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CBMC 춘천와이신협
 칠락의 기쁨 행복재가요양기관 ▶명단(단체)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 신협 131-005-937566(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솔
 편집·발행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에드에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도쉬아카데미

성경적성교육 강사양성과정모집

수강안내

기간 : 10월 6일~12월 22일(매주 금요일)

시간 : 오전 9:30~오후 12:00/점심/오후 1:00~오후 3:30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수강신청

수강신청 배부처 : 순복음춘천교회

이메일 등록 : holy1972@kakao.com

현장등록 : 순복음춘천교회사무실

문의 : 010-9698-2993

수강료

수강료 : 350,000원

입금 계좌번호 : 신한 131-017-16783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수료증 발급 : 카도쉬아카데미



수료조건

결석 2회까지 인정, 도서 과제물 제출, 강의 시연회 이후 수료증 발급

수료시혜택

카도쉬 아카데미 지부소속 강사자격, 지부 소속 스터디, 학교, 단체 강의

주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카도쉬아카데미

협력 : 카도쉬아카데미

춘천

그림 일대일 전도 양육 세미나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복음전도에 이렇게 열매 많은 교재는 없었다
그림 일대일 교재로 훈련받고 복음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지금 복음이 폭발한다.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지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일대일 행복'은 미국 한국 쿠바 케냐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탄자니아 피지 등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인 전도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이사역은 단순한 전도에 그치지 않고 평신도들이 양육하여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1년 만에 재생산사역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탁월한 사역으로 검증되었다. 현재 19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150 이상의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강사 : 송상철 목사
충신대, 충신신대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
(미)리버티유니버시티, (미)롤러산학교,
(미)리플드신학교, 한우리교회, 화성교회,
진리의교회, (현)KWMC부회장, GPI사,
GSGM 상임국제대표 (미)세한교회담임

18개 언어로 번역 출판



세미나 일시 :

8월 23일(수)~25일(금) 오전 10:00~오후4:00

장소 : 춘천 안디옥교회

등록비 : 3만원(점심 식사포함) / 교재비 : 2만원

문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010-9698-2993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신문 교계소식

2023년 1월부터

춘천 교계소식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2. 성시화운동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holy1972.com) > 신문방송)



성시신문교계소식

2023 춘천 성시선교대회

기간 : 9월 3일(주일)~9일(토)

장소 : 춘천석사교회

성시 선교대회

3일(주일) : 저녁 7시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라"

서정오 목사(진새골 영성훈련원 원장,
장로회 총회문화법인 이사장)

4일(월)-6일(수) : 저녁 7시

"회복이 있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W.O.R.L.D. Ministry 연구소장)

5일(화) : 포럼C - 오전 10시

장소 : 강원CBS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와 교회"

8일(금) : 저녁 7시

블레싱춘천-청춘예찬집회

"박카스 사건"

김영우 목사(혜림교회,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 오픈도어 선교회 실행이사)



만평 : 김춘배 화백

• 춘천성시화운동본부(010-9698-2993) •